이덕일의 '역사의 창'



시민과 역사학자

전 세계를 통털어서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을 꼽으라면 이른바 대학 강단을 장악한 역사학자들과 국 사에 관심 많은 시민들 사이의 불화일 것이다. 그런 불 화가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가야사 문제였다. 문재 인 대통령이 집권 초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가야사 복원 을 지시했을 때만 해도 이것이 역사학자들과 시민들 사 이의 충돌의 소재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 적폐청산을 내걸고 당선된 문재인 정권이니 당연히 식민사관을 청산하는 방향으로 가야사가 복원 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야사 복원이 가야가 고대 야마토왜(大和倭)의 식민지였다는 임나 일본부설을 주창하는 방향으로 드러나면서 시민들이 크게 반발했다. 문화재청에서 가야고분군을 유네스코 국제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하면서 전북 남원을 '일본 서기(日本書紀)'의 기록을 왜곡해 야마토왜의 식민지 '기문국'으로, 경남 합천은 마찬가지로 '일본서기'의 이른바 임나 7국의 하나인 '다라국' 으로 등재 신청했다 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갈등이 증폭되었다.

예전에는 근·현대 부분에서 친일파를 옹호하거나 일 제 식민 지배를 옹호할 경우 역사 논쟁이 벌어졌지만 최근에는 주로 고대사 분야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는 점이 다르다. 강원도 춘천에서 거대한 고조선 유적 지를 갈아엎고 레고랜드 놀이공원 조성을 강행하면서 시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고, '전라도천년사'도 시 민들의 반발로 배포가 중지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근•현대 부분의 역사 논쟁과 고대사 부분의 역사 논 쟁은 다르다. 근 현대 부분은 사실 자체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그 평가를 둘러싼 논쟁이다. 반면 고대사는 사 실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쟁이다. 최근까지 고대사는 물론 중세사 분야까지도 우리 국민들은 역사학자들의 전문 영역으로 인정해왔다. 대한민국에서 국사를 전공 하는 교수들이 대한민국의 관점으로 역사를 해석하지 않겠느냐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앞에 든 일련의 사 건들을 거치면서 이런 믿음에 근본적 회의를 가진 시민 들이 크게 늘어났고 새로운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중이

전북 남원을 고대 야마토왜의 식민지 기문국이라고 최초로 '왜곡'한 인물이 조선총독부와 경성제대에서 근무한 이마니시 류(今西龍)였다. 그가 1922년에 '일 본서기'의 기문국이 전북 남원이라고 왜곡한 것을 그 대로 추종해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신청하고, '전라도천년사'에도 그대로 실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서 한국 역사학계가 여전히 식민사관을 추종한다는 비 판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시민들이 크게 늘어났다. 이 마니시 류는 1930년에 간행한 '신라사 연구'에서 "경주 여, 경주여/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마음이 지금의 내 마음이다/ 우리 로마는 눈앞에 있구나/ 우 리 심장은 고동치기 시작한다."라고 신라 정복을 격하 게 노래한 장본인이다. 이런 이마니시 류를 지금도 한 국강단사 학계는 스승으로 섬기고 있으니 갈등은 필연 적일 수밖에 없다.

이병도와 함께 조선사편수회에서 근무하면서 한국 사를 난도질했던 신석호는 "내가 (경성제국대학) 본과 (本科)때 주로 가르침을 받았던 선생은 이마니시 류 박사라는 일본인이었다. 그는 비교적 학자적 입장에서 사실을 왜곡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야사-나의 중 심개념(독서신문), 1978)"라고 말했다. 이병도가 주 로 보수계열의 식민사학자들을 배출했다면 신석호는 주로 진보계열의 식민사학자를 배출했다. 역사분야에 만 우리 사회의 진영논리마저 사라지고 식민사학 일색 이 되는 구조가 여기에 있다.

역사학자들과 자국사를 사랑하는 시민들 사이의 화 해 방법은 간단하다. 강단 사학계가 일제 식민사학의 망령에서 벗어나서 독립운동가의 역사관을 받아들이 면 된다. 시민들이 식민사관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갑진년 새해에는 비상하는 청룡의 날개짓으 로 식민사학의 망령을 타파하고 독립운동가들의 역사 관이 우리 사회의 상식적인 역사관이 되는 원년이 되어 야 할 것이다.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社說

AI영재고 설립으로 인재양성 사다리 놓았다

있는 광주에 AI 영재고등학교가 들어선 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AI 영재고 설 립 근거를 담은 광주과학기술원(GIST) 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그제 국회 본회의 의결 직후 즉시 공포됐다. GIST 부설로 AI 영재고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대통령 지역 공약사업인 광주 AI 영재 고는 지난해 2월 GIST 개정안이 발의된 후 7개월만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 지만 법사위에서 세 차례 보류되는 우여 곡절 끝에 해를 넘겨 올해 첫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총 사업비 1038억 원 전액이 국비로 지원되는데 올해 설계에 들어가 2025년 착공을 거쳐 2027년 개교 예정이 다. 정원은 150명으로 매년 50명을 전국 단위로 모집해 무학년·졸업학점제로 운

광주 AI 영재고 설립이 특별한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관

인공지능(AI) 중심도시를 표방하고 련 인재 양성이 가능해 광주가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도약하는데 밑거름이 된다는 점이다. GIST 부설인 만큼 조기에 발굴 한 AI 영재를 대학 과정까지 연계가 가능 해 AI 전문 인력 양성의 사다리 역할을 하게 됐다는데 의미가 깊다.

> 광주는 지난해 11월 세계적인 수준의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문을 열고 서비스를 시작할 정도로 인프라가 확충돼 있다. 광주시는 AI 인재 양성 시스템과 인 프라를 바탕으로 1000여 개의 AI 관련 기 업이 광주에 모여 AI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 모델을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지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 는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인 'CES 2024'의 최대 화두도 AI다. 자동차, 반도 체, 가전 등 산업 전 분야에 AI가 핵심 기 술로 활용되고 있다. AI 영재고가 들어서 GIST와 함께 인재 양성의 일관 체제를 갖추게 되면 광주는 명실상부한 인공지능 중심도시가 될 것이다.

의료칼럼

정휘수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한 해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건강한 몸이 필수이다. 갑진년 새해 누구나 건강하길 소망했을 것이다. 연령 별 가장 중요한 건강 관리법을 알아보자.

'뼈&관절 건강'은 기본이다. 관절병 중 가장 흔한 '골관절염'은 뼈 관절면을 감싸는 연골이 마모되고 관 절 주변 염증이 생겨 통증과 변형이 발생하는 질환이 다. 척추, 고관절, 손가락 마디에도 생길 수 있고 고관 절에 발생하면 통증과 함께 걸음걸이가 매우 불편해져 일상 생활에 큰 지장을 준다.

퇴행성 관절염인 골관절염은 노년층에만 발병하는 병이 아니다. 가족력과 비만, 외상, 염증 등이 원인이 될 수 있고 최근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젊은층과 비만인 구 증가로 관절 연골에 일찍 손상을 입는 사람들도 증 가해 관절염은 퇴행성관절염 대신 '골관절염'으로 불 리기도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관절병증 진료인원은 2020년 478만 3879명에서 2022년 515만 6376명으로 증가했다. 여성이 남성보다 2배 가량 많았고, 10명 중 3명은 비교적 젊은 연령층인 '4050'세대였다. 퇴행성 관절염은 보존적 치료(약물, 물리·운동치료)로 개선할 수 있지만 연골이 많이 손상되면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

새해 건강 체크, 이것 만큼은

할 수도 있다.

골다공증은 중년기에 천천히 진행돼 노년에 이르기 때문에 젊은 나이부터 관리해야 하며, 중년여성 환자 비율이 높아 40~50대 여성은 정기 골밀도 검사로 뼈 건강을 살펴야 한다.

어르신들은 골다공증 발병 후 낙상을 겪으면 골절 합 병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남성은 여성과 달리 골다 공증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나이가 들수록 장내 칼슘 섭취가 적어져 뼈 생성도 감소하기 때문에 평소 골다공증에 대비해야 한다.

치사율 높은 내분비&심뇌혈관 건강이 중요하다. 당 뇨, 비만, 고혈압은 방치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이들 내분비질환은 호르몬 이상이 가장 큰 원인인데, 합병증 동반 위험이 커 관리가 필요하다. 그 중 비만과 당뇨는 식생활 개선이 기본으로, 개인 관리는 한계가 있어서 전문의 도움이 필수이다.

조용히 찾아와 치명상을 입히는 협심증, 뇌출혈, 뇌 경색 등 심뇌혈관질환도 주의해야 한다. 과거 심뇌혈 관질환은 노인성 질환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서구화된 식생활과 불규칙한 생활습관으로 30~40대 젊은층 발 병률이 증가 추세이다.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통계 자료를 보면 30~40대 고혈압 환자 3명 중 1명은 본인이 고혈압 환자라는 사 실도 모른 채 질환을 방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층은 수축기 혈압이 200mmHg까지 올라도 별다른 신 체적 통증을 못 느껴 방치하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 어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혈관 이상으로 발생하는 심장과 뇌 질환은 국내 대표 적인 사망 원인이다. 2022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심장질환 사망자는 3만 3715명으로 전체 사망자 중 9%를 차지했고, 뇌혈관질환은 6.8%(2만 5420명), 당 뇨병 3.0%, 고협압성질환 2.1% 순이었다.

심장 질환인 심근경색증, 협심증, 심부전증과 뇌경 색·뇌출혈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대사성 질환이 원인인 사례가 대부분이다. 대사성 질환은 혈 관에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쌓이며 혈관이 좁아지 고 염증이 발생하는데 방치하면 혈관벽이 터져 사망할 수도 있다. 고혈압 등 대사성 질환은 혈관 내 염증 수치 를 증가시키고 세포 대사 과정에 문제를 일으켜 합병증 을 동반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며 건강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혈관이 파열되는 뇌출혈을 뇌졸중이라 하는데, 뇌경색이 약 85%로 뇌출혈에 비 해 많다. 혈압이 아주 높다면 과도한 음주와 심한 스트 레스로 뇌졸중이 촉발될 수 있고 갑자기 추운 곳에 노 출됐을 경우나 심한 운동을 할 때, 탈수로도 뇌졸중은 발생할 수 있다. 심한 어지럼증이 계속되면 중증 뇌질 환 전조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MRI 검사 등 정확한 진 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몸, 잘 보이지 않는 곳도 구석구석 챙겨야 한 다. 췌장, 담낭, 담도 등 췌담도는 우리 몸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잘 보이지 않아 진단, 치료가 힘들다. '설마 나 한테 생기지는 않겠지'하는 안일한 마음에 검진과 치 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

새해 건강 도약을 위해서는 병에 걸린 후 힘들게 대 처하기보다는 향후 자신에게 올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 는 실천이 필요하다. 가족력 가계도를 점검하고, 건강 검진으로 새해를 시작해보자.

자치구 동물보호센터 도입, 예산부터 살펴야

광주시가 올해부터 '자치구 동물보호 센터'(센터)를 도입했지만 시범 운영을 맡은 지자체들이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 다. 유기된 동물을 위탁할 동물병원을 찾 아야 하지만 적합한 곳을 구하기가 어렵 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최근 증가세에 있는 유기 및 유실 동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역 내 동물병원을 지정해 위탁 관리하는 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를 도입 하고, 북구와 광산구에서 시범 운영 하도 록 했다. 광주시는 동물보호소의 포화 상 태로 인해 보호중인 반려동물의 질병 발 생 가능성과 자치구가 관리하면 유기동물 려해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운영에 나선 해당 지자체들이 어 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당장 시가 위탁 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안내했 지만 위탁을 희망하는 동물병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동물병원당 입

소 동물을 100마리로 제한하고 예산을 한 정해 마리당 20만 원으로 치료비와 사룟 값 등 각종 관리비용을 충당해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해 이 비용으로는 위탁을 맡을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더구나 치료비의 경우 강아지와 고양이 등 동물별, 종별, 증상별로 달라서 정해진 금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큰 것도 문제다. 동물병원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 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하루 입원 비용만 5kg 이하는 7만 원, 20 kg 이상은 11만 원으로 광주시가 책정한 금액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에서만 매년 3000마리 이상의 유 의 주인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고 기동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 는 것은 지자체의 당연한 의무이다. 동물 보호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지역 내 운영을 맡을 동물병원이 얼마나 있는 지, 관리비용과 비교해 예산은 충분한지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시대유감'

가요사(史)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 고 등장하는 게 금지곡과 건전가요다. 독 재정권 시절, 김추자의 '거짓말이야'는 불 신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금지곡이 됐다. 송창식의 '왜불러'와 '고래사냥'도 금지 곡으로 묶였다. 학창 시절 구입한 앨범 마 지막 트랙엔 늘 '시장에 가면', '어허야 등 기 둥기' 등의 건전가요가 실려 있던 기억 도 난다.

1990년대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금지곡 은 사라졌지만 가수가 음반 발매 전 한국 공연윤리위원회(이하

공윤)에 내용을 검사받 는 사전심의 제도는 여 전히 남아있었다.

전 남 본 부 220-0680

이런 상황속에서 심의 철폐를 강력히 주장하는 가수가 나타났다. 정태춘이다. 그의 대표곡 '시인의 마을' (1978)은 우여 곡절을 겪었다. 불건전 요소가 많다는 이 유로 공윤으로부터 '개작' 지시를 받았고 결국 '고독의 친구 방황의 친구'는 '생명 과 자연의 친구'로, '텅빈 가슴'은 '부푼 가슴'으로, '번민의 시인'은 '사색의 시 인'으로 수정됐다. 그는 1990년 '아, 대한 민국'과 '92년 장마, 종로에서'를 비합법 적으로 유통・판매했고 '위헌 법률 심판 제

청'을 신청하며 끊임없이 싸웠다.

정태춘의 외로운 싸움은 서태지의 등장 으로 힘을 받는다. 1995년 4집 수록곡 '시 대유감'에 대해 공윤이 가사가 과격하고 현실을 부정적으로 그렸다는 이유로 수정 을 요구하자 서태지는 '정직한 사람들의 시대는 갔어', '모두를 뒤집어 새로운 세 상이 오기를 바라네' 등의 가사를 삭제하 고 연주곡으로 수록해 버린다. 팬덤의 시 초로 불리는 그의 팬들은 서명운동, 항의 방문 등을 이어갔고 정치권까지 움직이며

> 결국 1996년, 60년만에 사전심의가 폐지됐다.

SM 소속 4인조 아이 돌 에스파가 15일 '시대

유감' 리메이크 버전을 선보인다. 오랜만 에 다시 들어본 '시대유감'은 스물 둘 청 년 서태지가 쏟아낸 직설적이고 비판적인 가사와 강렬한 록 사운드가 여전히 마음 을 움직인다. 이 노래가 발표된 28년 전과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 해보면 긍정적인 답을 내리긴 어렵다. '시 대유감'이 요즘 세대들에겐 어떻게 다가 갈지, 노래 한곡이 담고 있는 역사를 어떻 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

/김미은 여론매체부장 mekim@

⟨FA X 222-0195⟩

⟨FAX 222-0195⟩

⟨FAX 02-773-9335⟩

다시, 암태도



고

기

서울 선정고 교사 방학이 되면 필자는 학교의 허락을 받아 고향인 신안 자은도로 향한다. 우선 부모님의 안부를 확인하고, 고 향을 포함한 주변 섬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해 보

최홍길

고 싶어서이다. 퍼플섬은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많은 수의 외지인들이 찾고 있었다.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 이 쉴 수 있도록 바닷가 쪽에 3층 짜리 숙소를 완공했 고, 지역의 문인들이 나무다리 곳곳에 목판 시화를 전 시한 게 이채로웠다.

퍼플섬을 구경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암태도의 중심가에서 붕어빵을 사려는데 농협창고 외벽에 그려 진 벽화 두 작품이 눈에 띄었다. 푸른색으로 드로잉을 한 농민들 여럿이 서 있는 모습, 다른 쪽에는 이 건물의 내부에 무언가가 있음을 암시하려는 듯 들판에서 일하 는 농부 두 명의 모습이 들어 있었다.

여태까지 면사무소 소재지에 소작인항쟁기념탑만 덩그러니 하나 있었을 뿐 전시관이나 기념관은 없었 다. 어느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인근에 에로스 박 물관이 오래전부터 들어서서 외지인들 또한 상당히 의 아해했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암태중학교 옆의 안 쓰 던 농협창고를 개조하여 '암태소작쟁의 100주년 기념 전시관'이 드디어 문을 연 것이다. 지주와 소작인 사이 의 분배 갈등이 쟁의의 원인이었기에, 미곡 창고를 전 시 공간으로 활용했다는 자체가 상징적이었다. 70여 평 크기인 전시관은 입구에서 시계 반대 방향을 따라 7 개의 장면으로 구성되었다. 전시장 가운데의 철망을 활용한 설치 작품이 인상적이었는데 당시 농민들은 지 주의 압박과 일본의 통치에 이중으로 갇힌 셈이어서 이 렇게 작품을 만들게 되었다는 해설사의 설명이었다.

1920년대에 일제의 저미가정책(低米價政策)으로 지주의 수익이 줄어들자, 지주들은 소작료를 올려서 부족분을 보충하려 했다. 문 씨와 천 씨로 대표되는 암 태도의 지주들도 소작료를 무려 8할까지 인상했다. 이 에 따라 농민들은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1923년 9월 에 암태소작회를 결성하면서 소작료를 논 40%, 밭 30%로 하며, 불응하는 지주에게 소작료를 내지 말 것 등을 결의했다. 협상을 시도하던 가운데 지주 측에서 소작인회 간부를 폭행하는 등의 일이 터지면서 쟁의가 확대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다음 해인 1924년 6월과 7 월, 두 번에 걸쳐 주민 수백 명이 여러 척의 풍선(風 船)을 타고 목포로 나가 농성을 이어갔다.

목포경찰서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앞에서 아사동 맹까지 결의했다. 이는 결국 전국적인 반향을 불러일으 켰고, 서울·평양 등지에서 지원금이 답지할 정도였다. 마침내 일제는 더 이상 문제가 확산되는 것을 피하려고 목포경찰서장을 암태도로 보내 중재를 한 것이다.

암태도에서 불붙은 소작쟁의는 도초도와 자은도 등 신안군 섬 지방은 물론 전국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이후 문 지주는 대오각성한 뒤 독립운동 자금을 보내기 도 하고 1941년에는 목포에 문태학원을 세우기도 했 다. 주지하다시피 수능에서 '한국사'는 필수과목인데 다 1923년부터 1년 동안 진행되었던 암태도 농민항쟁 은 출제 단골소재로 자리매김을 할 정도이다.

4년 전에 생긴 천사대교 덕택에 이제는 여객선을 타 지 않고도 암태도를 갈 수 있게 되었다. 퍼플섬에서 바 람을 쐰 뒤, 자녀들의 손을 잡고 기념 전시관을 둘러보 면서 그날을 회고해 보는 것도 뜻깊은 일이리라. 게다 가 동백꽃 벽화 앞에서 사진을 찍어 기념하는 건 금상 첨화가 아니겠는가.

光则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치 부 220-0652 부 220-069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63 부 220-0693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64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울 지사 02-773-9331

>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